

시민과 함께 '강한 전주' 그려나간다

시민 100여명 참석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 개최... 도시·경제·문화·복지 4개 분야 분임 토론 진행

전주시가 강한 전주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했다.

시는 2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2022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강한 도시, 강한 경제, 강한 문화, 강한 복지 4개 분야 분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시민들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맡았다.

특히 시민 참가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강한 전주'의 이미지를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시가 지켜야 할 것과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시는 이날 참가자들의 가장 많은 공감 받은 정책을 제안한 팀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에게 전주시 장상을 수여했다.

시는 이번 시민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향후 검토 결과도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어



전주시는 2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2022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팍 막힌 전주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 나는 시민

들의 소중한 의견이 전주에 창조와 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대한민

국 대표 도시로 재도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전개

전주시, 매장·소비자 자발적 동참 유도

전주시가 지역 식품접객업소들과 함께 시민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인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서 소비자의 자발적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전개한다.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점액 방식을 바꿔나가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먼저 참여 매장들은 빨대와 컵홀더 등의 일회용품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계산대나 음료 받는 곳에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1회용품을 제공해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또 무인주문기(키오스크)와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 주문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 된다.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에는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편의점, 슈퍼마켓 등 기타 업종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매장들은 '1회용품 줄여가게 누리집'에 가입 후 분기별로 감량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참여 매장의 상호, 업종, 연락처는 '1회용품 줄여가게' 지도정보(MAP)로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시는 많은 매장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관련 협회 및 상인회의 협조해 캠페인의 취지 및 제도를 안내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율 감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앞으로도 일회용품 줄이기가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관광 대도약세미나' 개최

전주시가 관광 대도약 준비를 위해 지역관광산업 관계자와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20일 지역 관광산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전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주관광 대도약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3년 평균실종시대, 관광트렌드 분석'과 '민관 지역관

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분야별 관광업계 의견 수렴, 관광객 수용태세 준비 퍼포먼스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전주시가 2020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기획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다. /최아영 기자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전주덕진소방서, 안전관리 위해... 자격없이 위험물 운송 최대 1000만원 벌금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2022년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해 이동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나선다.

이번 가두검사의 검사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 위험물 수납 용

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위험물 표시 차량) 등으로, 위험물 운송자 및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2항과 벌칙 조항인 동법 37조에 따라 위

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위험물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신임경찰 '힘찬 첫 출발' 전입 환영식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신임경찰 전입식을 시작으로 전북 신임경찰들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 도경찰청 은고을홀에서 '강원수 전북청장, 주요 지휘부, 신임경찰 87명(남 54명, 여 33명), 가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임 제 311기 전입 환영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전입한 신임경찰관은 중앙경

찰학교에서 6개월 정규 과정을 마치고 2개월간 '현장대응력 향상과정, 지역경찰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강원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 인권을 중시하고 명확한 법령과 절차 준수, 인간미가 있고 아픔을 감싸주는 경찰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심폐소생술" 선택 아닌 필수

전주완산소방서는 도민들의 심폐소생술의 중요 인지도 및 방법에 대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겨울철 급격히 발생하는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당부했다.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정지는 한해 약 20%가 넘는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완산소방서는 "심정지 환자 발견 시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95% 이상이지만 골

든타임 4분을 넘어서면 생존율이 25% 이하로 낮아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1단계) 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 (2단계) 119신고 및 도움요청, (3단계) 두 손으로 뒤통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압박' 순이다. 압박 깊이는 성인 5cm, 소아 4cm이며, 압박 횟수는 1분에 100~120회로 규칙적이고 빠르게 압박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도민생활 접점 다매체활동 홍보 및 전광판, SNS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